

IgA 신증 환자에서 신생검시의 신기능 저하 여부에 따른 임상적, 조직적 소견

권은희, 김성진, 이동원, 이수봉, 박임수, 나하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목적: IgA 신증 환자에서 진단 당시의 신기능 상태와 임상적, 조직학적 소견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 내과에서 1991년 1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신생검을 받고 IgA 신증으로 진단된 1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검 당시 신기능이 정상인 군(group A: GFR>70ml/min) 79명과 신기능 저하가 나타난 군(group B: GFR<70ml/min) 30명으로 구분하여 신생검 당시의 연령, 성별, GFR, 조직학적 분화도, 24시간 소변 단백량, 혈중 IgA 농도, 육안적 혈뇨 유무, 고혈압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1. group A에서는 남자 46명, 여자 32명이었으며, group B군은 남자 15명, 여자 16명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2.

	group A(n=79)	group B(n=30)	p-value
age	27±10	32±11	p=0.031
grade	2.7±0.7	3.2±1.0	p=0.012
Esbach protein(mg/day)	1662±2406	2574±2800	p>0.05
IgA(mg/dl)	364±174	520±726	p>0.05

3. group A에서는 gross hematuria를 보인 환자가 79명 중 27명(35%), group B에서는 30명 중 13명(43%)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group A에서 신생검시 고혈압이 있었던 군은 79명 중 7명(8%), group B에서는 30명 중 8명(2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IgA 신증 환자에서 신생검시의 신기능 저하가 연령 및 조직학적 분화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gA 신증의 진행과 관련된 다른 임상적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근 6년간 종합병원에 입원한 급성신우신염 환자의 임상적 양상과 원인균에 대한 고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진서, 조성태, 오국환, 윤종우, 김근호, 전로원, 김형직, 채동완, 노정우

목적 :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비뇨기계 이상 등의 위험 인자 등에 따른 원인 균주 및 항생제 감수성과 임상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종합 병원에서 급성사구체신염의 일차 치료 약제로서 가장 적절한 항생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최근 6년 간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한 15세 이상의 환자 182명의 진료기록을 조회하였으며, 병원감염에 의한 급성신우신염은 제외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들의 연령은 45.5±19.6세(평균±표준편차)이었으며, 남녀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남녀비는 163:19로 여자 환자가 8.6배 더 많았다. 여자 환자의 18.4%(30례)와 남자 환자의 36.8%(7례)가 당뇨 및 비뇨기계 이상 등 기저 질환이 있었다(p=0.062). 발병 당시의 증상과 징후에 따라 매긴 임상적 중증도는 8점 만점에 4.37±1.76점이었으며, 7점 혹은 8점의 심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25명(13.7%)였다. 진단 당시에 AST 증가가 17.6%, ALT 증가가 14.3%에서 관찰되었으며, 혈청 인 농도 감소가 19.2%에서 관찰되었다. 대상 환자들의 입원 기간은 6.06±2.8일이었고, 모두 합병증 없이 완치되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37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연령이 높았으며, 입원 기간이 더 길었으나(p<0.05), 양군 간에 과거 요로감염의 횟수와 임상적 중증도의 차이는 없었다. 원인 균주가 증명된 91례 가운데 *E. coli*가 82례(90.1%)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Pseudomonas*, *S. viridans*, *enterococcus*, *CN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가 각각 2례 씩이었고, *Proteus*가 1례였다. 항생제에 대한 *E. coli*의 내성 균주의 비율은 ampicillin 37.8%, bactrim 40.2%, cefazolin 8.5%, amikacin에 대해 2.3%이었으나, cefotaxime에 대한 내성 균주는 없었다. *E. coli* 가운데 ciprofloxacin에 대한 내성 균주는 17.1%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내성 균주의 비율은 34.5%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p<0.05). **결론 :** *E. coli*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급성 신우신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었으며, ciprofloxacin 등의 내성 균주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